

천지창조

① 6일동안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레이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은 아직 아무 모양도 없고 어두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레이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빛을 보시고 '보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그러시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창조의 첫째 날이죠.

하나님
나레이션

둘째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위 아래로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을 나누어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아래의 물을 한 데 모아 바다로,
물이 드러난 곳은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풀과 나무와 열매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땅, 그리고 열매를 비롯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곤
'좋다'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
나레이션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번성하여라
여섯째 날, 땅에서 사는 생물들, 들짐승과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 빠진 게 뭐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땅 위의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느니라

나레이션

하나님께서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신곤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